

부경여대협 5, 6월 사업계획서(초안)

주는이 : 10기 부경여대협

받는이 : 부산경남지역 각 학교 총여학생회

용도 : 토론용(꼭 토론하십시오)

0. 들어가며

3, 4월을 힘차게 달려온 부경여대협은 이제 5, 6월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벌여내어야 한다. 4월을 돌아보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한마당에서 진행되었던 여학우한마당을 통해 동의대 여성문제 연구회를 만나내고, 전쟁과 여성 강연을 통해 여학일꾼들의 결의를 높여내었다. 강연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울산대에서 많은 학우들을 조직화해서 함께 강연을 듣는 모범이 있었다.

5, 6월은 실제적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통크게 준비하고 학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미, 반성폭력을 실천하는 뽀때나는 5월 대중사업을 통해 학우들에게 총여학생회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야한다. 반성폭력 운동을 학우들 속에 실천적으로 각인시키자.

부경여대협 대표자들과 일꾼들의 결의와 결심으로 반미반전, 불가침조약체결에 여학우가 주체적으로 투쟁하며 6.13과 6.15투쟁을 사용할 줄고 잘 진행하자.

1. 정세

-전체 정세(부경총련 5, 6월 토론제안서 참조)

-여성 정세

여성 노동자 농민 투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경남도여농의 국회앞 천막농성과 도여농회장님의 식발투쟁을 벌였다. 여성농민들은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연일 벌이고 있다.

불농철을 계기로 여성농민들과 결연적이고, 실천적인 연대를 맺어나가자.

메이데이는 113주년째이지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4월 22일 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정규직 여성 직업상담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노동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여성들 면접 때 차심부름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회사가 27%였고, 실제로 차심부름을 거부할 경우 강제해고당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여대생들도 예비여성노동자이므로 학내에서 메이데이 의식화를 잘 진행하자.

호주제 폐지 투쟁

호주제 폐지 이후 그 대안으로 일인일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인일직 실현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4월 21일 월요일에는 토론회도 열렸다.

노무현 정부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열의가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얼마나 더 학우들의 의식변화를 주어서 보수세력들의 표를 호주제 폐지로 돌려놓느냐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가족제가 아닌 일인일직제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학교별 반성폭력 투쟁

동아대에서의 음대 교수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과특성상 교수실에서 단들이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에서 교수가 학생을 상습 성희롱하고 반항할 경우엔 시험을 잘 쳐도 점수를 낮게 주는 사태가 일상화 되어 있다.

울산대에서도 얼마 전 도서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아닌 사람이 도서관에서 여학생을 언어 성희롱한 것이 신고가 되어서 총여학생회에서 여학우와 함께 사과를 받아내고 학교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학교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사업을 벌이고, 차근차근 성폭력 학칙 개정투쟁을 준비해 들어가자.

2. 시기규정

1. 부경여대협, 전여대협 지도부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
2. 반미반전,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투쟁을 여학우들과 활발히 벌이는 시기
3. 6. 13효순이 미선이 1주기와 6.15 3돌 사업을 잘 벌이는 시기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흐름을 학교에서 만드는 시기
5. 메이데이와 불농철을 통해 연대활동을 가져나가는 시기
6. 학교별 대중제와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열어나는 시기

3. 투쟁방향

부경여대협 의정נם을 중심으로 대의원대회, 출범식 성사하고

반미반전, 북미불가침 조약체결운동과 5월 대중사업을 잘 벌여서, 반성폭력 문화제로 모아내고, 6.13, 6.15투쟁으로 달려가자.

4. 핵심사업 투쟁

■반미반전투쟁&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운동

--->법정학원 반미공중 투쟁기간과 맞물려서...

3, 4월을 이라크 전쟁반대와 파병반대로 낮은 구호로 대중들을 광범위하게 모았던 성과로 5, 6월에는 본질적인 구호를 들고 투쟁해야 한다.

-선전 의식화 방도

①당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일러내자

②여성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알리는 특별기획선전과 유인물을 제작하자

-투쟁 방도

①대중제 안에서 전쟁반대,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6.13 여학우 대표자 선언운동을 조직화하자. 조직된 선언명단을 학내 모든 계시판마다 퍼내르자.

②여학우들과 반전버튼나누기(대중제공간에서 진행하자)

③정대협이 주최하는 '전쟁과 여성' 초청 강연회를 열자.

■메이데이 투쟁

113주년 노동절을 맞아 총여학생회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선전 의식화 방도

①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알리자.

②여성노동과 메이데이 내용으로 부경여대협 유인물 제작 - 28일 제출

유인물을 부경여대협 / 총여 명의로 화장실신문으로 부착하자.

-투쟁 방도

학내 여성노동에 대한 눈 돌리기(조사사업)

학내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학교 또한 정규직(학교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임금이 싼 용역, 파견업체를 쓰기 때문이다.

청소용역아주머니, 식당아주머니, 과 사무실 근로 등의 학내의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조사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학우들과 공유하고 학내 여론화 시키자.

■전여대협 총회

전여대협 총회는 전국 50만 여대생들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자리이다.

일시 및 장소 : 5월 9, 10일 수원 아주대학교

-전여대협 대의원은 총여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에 들어가는 여학국장

(기획안 전여대협에서 추후제출)

■5월 대중사업

학교별 대중제나 5월 행사준비를 잘하여 여학우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자

->중심기치: 반미반전여성행동과 반성폭력!

대동제 사업을 할 때는

-중심으로 틀어쥐고 갈 방향을 명확히 정하자.

-학우들이 많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

-준비단을 잘 꾸려서 총여학생회에 사람을 많이 남길 수 있게 하자.

-총여학생회 대의체계를 꼭 발동해서 단대, 과 여학부장님들을 움직이자.

-이후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로 조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치사업하자.

5월 대중제때 우리 학콘 뭘하면 좋을까?

-의식화 사업

선전거리(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스티커설문형식으로)

총여와 여성문화제를 상징하는 큰 조형물 만들기, 대규모 선전(통큰 선전의식화)

-문화제 본뜬에 학우들의 다양한 참여 유도

인터뷰 동영상 만들기(총여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묻는 것을 중심으로)

안티미스코리아대회(외모와 몸매가 아니라 여성들의 자주성과 끼를 중심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과별 참여가능하게 한다)

상반기를 총화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넣고 단대여부장님을 조직화하자.

확대운영위 공연을 올리자.

-부대행사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캠페인(여성민우회나, 지역여성회)

전쟁과 여성 강연회

기활모집사업(참가신청서 받기)

여성영화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버튼 나누기(학우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성조기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기(총여학생회의 내용을 적은 새 옷으로)

남학우 과일깎기, 여학우 팔씨름 대회(성역할 바꾸기)

요리 경연대회(볶음밥 등 재료 적게 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

반성폭력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은 아무도 없다.

결심의 문제이다. 대중제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서 학우들을 반성폭력 문화제로 조직화하면 총여학생회의 성과로 고스란히 남는다.

-조직화 방도

①반성폭력 문화제 기획단 온라인 회의에 꼭 참가하자.

②총여학생회 대의체계를 타고 단대, 과여부장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자

③화장실 신문이나 여휴 백지자보를 통해 알리고, 여학우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여대협으로 총화하자.

④총여 대중제에 참가한 학우들에게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설명하고 참가 신청서를 받자.

■부경여대협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부경여대협이 4년만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이다.

일시 및 장소 : 5/25 (가안) 장소 미정

-부경여대협을 학우들에게 잘 알려내자

-대동제 기간과 겹쳐서 많은 부담은 있지만 부경여대협을 울곧게 세우겠다는 결심으로 부경여대협 학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준비하자.

(추후 세부 기획안 제출)

■6.13 부산경남지역 여학생 대표자 선언운동(★★★★)

부산경남지역의 모든 총여학생회장, 부회장, 단대, 과 여학부장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선언운동이다.

부산경남지역 여학생대표자들이 벌이는 반미투쟁이며, 또한 부경여대협 조직사업 및 학교별 총여 조직사업의 일환이다.

-방도

①부경여대협 상층에서의 비권 총여학생회 조직 사업

②학교별 단대, 과여부 조직화

(확대운영위 학습을 통해 정치사업하고 집단적 결의를 내어오자)

-총화 방도

각 학교 과, 동아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퍼나르기.

6월 13일 신문광고투쟁으로 총화하자.

(선언운동용지 추후 제출)

■6.13, 6.15 학내 투쟁

6.13 미선이 효순이 1주기

-6.13 학내집회에서 총여학생회에서 여학우들을 조직화하고, 같은 색의 두건을 쓴다거나, 손목띠를 묶는다거나 하는 공동행동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

-6.13 여학우 대표자 선언운동한 명단을 자보화하고, 과,동아리 게시판에 퍼나르자.

6.15 기념사업

-6.15 공동선언 3돌 기념주간을 설정하자. 2000년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다보니 공동선언에 대해 모르는 학우들이 많이 있다. 공동선언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지름길임을 잘 알려내자.

-6.15 공동선언 전문과, 6.15이후 달라진 통일의 열기에 대해 선전의식화하자.

사진전-이북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을 열자!

■기지촌 활동 준비

모집사업을 5월 행사공간에서 활발히 벌이자.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구체적으로 기활을 갈 일꾼과 학우들을 조직화하고 준비하자.

기활관련 계획은 5월 말부터 6월 초에 새움터 카페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고, 6월 말에 기활학교를 진행한 후부터 기활이 진행될 예정이다.

6월 중순 부경여대협 기활학교에 참가하자.

■성폭력 상담원 교육 및 여성단체 캠프 참가

-지역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6월 말부터 방학기간을 거쳐서 성폭력 상담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총여학생회 간부나 학우 중 꼭 한 명이라도 참가해서 성폭력에 관한 총여학생회의 전문성을 높여내자.

-여성단체별로 방학 중에 실시하는 캠프들을 알아보고 참가해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소양을 넓히자.

7월 부경여대협 교양학교 예정(★★★)

5. 조직사상운동

조직생활이 되지 않으면 하루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고, 그것은 총여학생회 전체 조직운영을 어렵게 한다. 학습도 물론이고, 학우들과의 만남도 어렵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돌아보자.

조례, 중례, 회의, 주 총화 대회...총여의 많은 사업과 투쟁들...

나 때문에 안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준비 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총여학생회 우리 일꾼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우리 학교 여학우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냉정하게 평가 해보자.

100번을 강요해도 모자란 감이 드는 것이 조직 생활이다.

■월 총화, 대회를 하자!

이전까지 주총화대회를 제기 했지만, 제대로 진행을 한 단위는 한군대도 없다.

총화대회는 일꾼들의 활동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허심한 총화와 평가를 통해 자기비판 상호비판을 하는 자리이고, 동지애를 높일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나 5월 6월은 달력에 빼놓은 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쁜 달이며 그래서 지치기 쉽다.

반드시 4월 총화대회를 통해 5, 6월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동지애를 더욱 높여 낼 수 있게 하자.

-내용

3, 4월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 평가

3, 4월의 주체 총화

(조직생활, 고민, 학습 총화, 총여학생회내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평가 등등)

모범일꾼 선정

영상 학습

5, 6월에 대한 결의

공과 공각지 정하기

■확대 운영위

1주일에 한번 확대 운영위를 정기적으로 꼭 개최하자.

-내용

->전여대협 총회, 부경여대협 대의원 대회 함께 하기

(단대어학국장은 부경여대협 대의원입니다)

->학습을 반드시 진행하자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에 자방단이나 기획단으로 적극 결합 시키자.

-과여부 사업

① 과 체육대회때 여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 만들기

==>여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②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에 준비주체로 적극 결합시키기

③ 6.13 여학생 대표자 선언운동을 과여학우들과 함께 진행하자

④ 봄농활,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활동의 주체

■지역별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 인식회의

부산 경남 지역 각 학교에 총여학생회가 있는 단위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현상이다.

하지만 학교마다 여성 문제 연구 소모임이나 동아리로 있는 곳은 아주 많다. 소모임이나 동아리도 현재 학습 커리부족과 활동이 부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경남 지역 소모임 회의를 통해서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의 발전을 내어오고 여학생 운동을 더욱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

*부산지역: 동아대 경영대 '허심탄회', 부산대 '히스테라', 동의대 '여성문제 연구회'

*진주지역: 경상대 민들레,

*마창지역: 창원대 '파라', 경남대

구체적 계획

- 5월중으로 소모임 회의 제안 (커리 내용 공유, 정기적 회의일정)

- 방중에 공동학습 토론회 제안(가)

■학습

-확대 운영위 학습

5월 첫주: 봄농활, 메이데이 관련 여성 노동자

둘째주: 반 성폭력, 전여대협 부경여대협이란?

셋째주: 총여학생회 여성 문화제

넷째주: 영상물(영화나 다큐멘터리-낮은 목소리, 끝나지 않은 이야기)

6월 첫주: 주한미군 범죄

둘째주: 기지촌 활동, 6.15 공동선언

셋째주: 영화나 다큐멘터리- 꽃피는 할머니

넷째주: 여성 농민운동

-개인 학습 : 전여대협 이 달의 책

-소조 학습 : 새 여성학 강의, 색슈얼리티 강의, 여성신문 분석

점검과 총화를 잘하자. 항상 학습을 하고 나면 학습 총화서를 작성하고, 실천활동을 가져가자(이전의 사업 계획서 참조) 개인 학습은 총화대회를 통해 꼭 점검하자

6. 봄농활

-봄농활때부터 1년 동안의 여성농민반 주체를 세우자.

-학교별 농활 교양 시간에 여성농민의 내용을 준비해서 총여학생회에서 주체적으로 준비하자

-군여농이 있는 곳은 여성 농민반 평가를 진행하고, 여름 농활을 준비하자

7. 전체일정

5. 1 메이데이

5. 2 ~ 5 봄농활

5. 9, 10 전여대협 총회

5. 17 부경총련-함북위 공동집회

5. 18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촉구, 미군철수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행동의 날(광주집중)

5월 셋째, 넷째주 학교별대동제

5. 25 부경여대협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가)

5. 30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 (가)

5. 30 ~ 6. 1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6. 13 신효순, 심미선 1주기 추모행사

6. 15 민족 통일 대축전

6. 30 ~ 7. 9 여름 농활

이후 기지촌 활동

자주로 핀 해방대오

10기 부산 경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준)